

보도시점 2024. 2. 2.(금) 12:00
(2024. 2. 3.(토) 조간)

배포 2024. 2. 2.(금) 09:00

삼성전자도 28GHz 이음5G 활용

- 이음5G 활용으로 제조현장의 생산성 향상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 삼성전자에게 이음5G 주파수(28GHz, 4.7GHz)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이자 수출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사업장에 이음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통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4.7GHz 대역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 대규모 단말 연결이 가능한 28GHz 대역 이음5G를 네트워크 장비 제조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음5G 망을 통해 기존 유선망 대비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설비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보안·안전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이음5G 솔루션은 28GHz 기지국의 상향(업로드) 및 하향(다운로드)의 비율을 기존 2:8에서 5:5도 지원하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이음5G 특화 기능을 생산시설에 추후 적용해 대용량 초고속 환경에서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8GHz 이음5G 활성화에 힘을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은 법인이 12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31개 기관 56개소로 이음5G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이음5G 주파수 할당·지정 현황(2024년 1월 기준) >

할당 (19)	네이버클라우드('21.12월), 엘지씨엔에스('22.6월, 12월), SK네트웍스서비스('22.5월, 11월), 네이버커뮤니케이션즈('22.8월, '23.4월), CJ올리브네트웍스('22.8월, '23.4월), KT MOS북부('22.10월, '23.2월, 4월, 8월, 9월, 12월), 세종텔레콤('22.10월, '23.10월), 위즈코어('22.10월, '23.2월(4월), 12월), 뉴젠스('22.11월, '23.9월), 현대오트오에버('23.4월), LS ELECTRIC('23.4월), 메가존클라우드('23.7월), LG전자('23.7월, 10월), 포스코DX('23.9월), 큐셀네트웍스('23.11월), 큐비콤('23.11월), 가이온('23.12월), KT MOS남부('23.12월), 한국전력('24.1월)
지정 (12)	합동참모본부('22.10월, '23.6월) KT('22.10월), 한국수자원공사('22.10월), 유엔젤('22.11월), 한국수력원자력('22.11월, '23.2월), 한국항공우주산업('22.12월), 정부청사관리본부('22.12월), 캠틱종합기술원('23.2월), 쿤텍('23.6월), ETRI('23.10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23.10월), 삼성전자('24.1월)

※ (주파수할당) 통신사업자가 기업·방문객 등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파수 이용 (주파수지정) 기업·기관이 무선망 활용을 통한 자기 업무R&D 등의 추진을 위한 주파수 이용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표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음5G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고 28GHz 활용 확산에 노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향후 이음5G 장비·단말·솔루션 업체들과 협력하여 28GHz 이음5G 기반의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	책임자	팀 장	정재훈 (044-202-4917)
		담당자	연구관	장영호 (044-202-4938)

